

---

# 국외출장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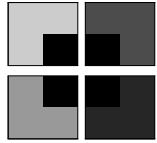
- 「해외 전문가 국제협력 연구사업: 제4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장관급회의」 결과보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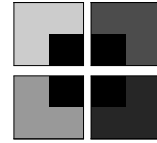
2019.3.17.



국토연구원



# 목 차



## I. 출장개요 ..... 1

1. 출장배경 및 목적
2. 출장자
3. 출장지 및 기간
4. 출장 주요일정

## II. 주요 활동 사항 .....3

붙임. 항공권 및 여권 사본

**1. 출장배경 및 목적**

- 제4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장관급회의 참석
- OECD/RDPC 회의 참석으로 국제적 지역개발 이슈 파악
  - 참여국의 지역개발 정책 발표내용 청취로 현재 각국에서 추진 중인 지역개발 방향과 중요 이슈 파악
  - 지속적인 국제회의 참여로 국제협력 인적 네트워크 강화
  - RDPC 내 국토연구원의 위상 증진과 의사결정 참여 및 발언권 강화 방안 모색
- 국토교통부 회의 업무 지원
  - OECD 국제회의에서 지역개발정책 관련 발의 내용 작성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지원을 함으로써 국토연구원의 정책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2. 출장자**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 강민조 책임연구원

**3. 출장지 및 기간**

- 출장지: 메가론 아테네 국제회의장, 그리스 아테네
- 출장기간: 2019. 3. 17(일) ~ 2019. 3. 23(토) (5박 7일)

#### 4. 출장 주요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3월17일(일)	인천	로마	(15:10) 인천 출발 (19:35) 로마 도착	
3월18일(월)	로마	아테네	(10:40) 로마 출발 (13:40) 아테네 도착	
3월19일(화)	메가론 아테네 국제회의장		(08:00-18:00) 장관급회의 개회세션 및 전체회의 세션 등 참석	
3월20일(수)	메가론 아테네 국제회의장		(08:00-19:00) 전체회의 세션 및 별도분과회의, 폐회 세션 등 참석	
3월21일(목)	메가론 아테네 국제회의장		(08:00-18:00) 디지털 연계행사 등 참석	
3월22일(금)	아테네	파리	(16:15) 아테네 출발 (18:45) 파리 도착	
	파리		(21:00) 파리 출발	
3월23일(토)		인천	(15:35) 인천 도착	

## II 주요활동

### I 제4차 OECD 지역개발 장관급회의 전체회의 세션1

#### I. 회의명

- 전체회의 세션 1: 지역개발정책 과거와 미래

####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19일 15:15, 메가론 아테네 국제회의장 Banqueting hall

#### III. 참석자

- 회원국
- 의장: Mr. Angel Gurría, Secretary-General, OECD
- 주요 발연자: Mr. Barbara Kezzi, Italy  
Mr. Jerzy Kwiecinski, Poland  
Ms. Corina Cretu, European Commission  
Mr. Abdelahad Fassi Fehri, Morocco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정경훈 실장,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조성균 담당관, 지역정책과 손덕환 과장,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이승희 사무관, 도시정책과 오원택 사무관, 지역정책과 엄수연 사무관, 지역정책과 서민지 주무관, 국제협력담당관 문성윤 자문관, 국토연구원 강민조 박사

## IV. 핵심내용

### □ 주요 발제내용

- (의장) RDPC 창립 20 주년을 맞이한 본 세션은 지난 20년 동안 지역 개발 정책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지역간 불균등의 격차(30~40%)가 발생하므로 지역개발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염두해둬야 할 일임
  - 서로 다른 도시와 지역, 국가들이 어떻게 지역개발정책을 수행하여 왔는지에 대한 다수의 보고서가 있으며 메가트렌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장소기반 정책 하에서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성과 포용에 달려 있음
  - 많은 지역들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지역개발은 지방분권과 더불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앞서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이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 성장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폴란드) 지역개발정책 20주년을 맞이하여 1989년에 지금 갖추고 있는 지역개발체계가 수립되었으며 성공적인 사례로 남아 있으며, 유럽의 30~50% 수준의 지역개발 수립을 이뤘다고 생각함
  
- (유럽정책) 20세기 3월 이후에 불평등과 관련한 조사 결과, 여러 실질적인 사회적 불평등과 지역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나 세계화와 기술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지형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불균형이 발생함
  
- (모로코) 모로코 대표로서 이러한 장관급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2005년 이래로 참석하고 있으며, 위원회 내에서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이탈리아) 지역개발정책 위원회 의장으로서 그리스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지역개발에 논의를 한 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며, 20년간 OECD 각국 정책들을 제시해 주었으며 정책제안과 수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장소기반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지역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음.
- (의장측) 불만의 지리학 이외에도 기회의 지리학적 관점에서 발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들 들임

## □ 공개토론

- 또한 OECD의 역할과 각국이 OECD의 지역 개발 및 다층적인 다양한 레벨 수준의 관리에 대한 교훈을 토대로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 왔는지를 검토 할 것이며, 앞으로 기존의 지역개발 정책 패러다임이 메가트렌드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등에 관련한 3개의 토론 주제 제시
  - 토론 1: 지역개발정책은 어떻게 지리적으로 차별화된 개발 모델을 조성하고 지역 다양성을 보존하여 우리 경제와 사회를 새로운 도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
  - 토론 2: 지역개발 접근 방향을 어떻게 불만이 있는 지역주민에게까지 직접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 토론 3: 메가트렌드에 의해 생성된 기회를 활용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방법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레벨의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틀에 관한 논의
- (미국)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정책개발을 위해서 미국에서는 장소정책 기반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역량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 환경이나 국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고 있음.

- (그리스) 그리스는 어려운 시기를 10년 동안 극복하고 있으며, 이런 논의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될 수 있음
  - 지역개발정책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로컬 및 지방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시민과 연계가 있기 때문임. 균형개발 측면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전반적 차원에서 성장전략을 마련할 수 있음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이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900만의 인구를 지니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르므로 개입정도도 달라질 수 있음
  - 법적인 차원보다는 소프트적인 접근, 공공부분의 역량 증진 및 정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함
  
- (캐나다) 장소기반 정책은 캐나다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내각에 지역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장소기반의 성장전략을 함께 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이는 상황임
  - 청정기술 성장, 디지털 정책, 클러스터 정책, 교육의 활성화 등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여러 마을의 규모의 경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나타냄
  
- (투약) 투약의 회원들은 59개국의 OECD 회원국 내에서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노조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정책은 중요하며 저탄소 경제체제로 넘어가면서 과거에 직면하지 않았던 문제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야 함
  - 도심개발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및 관계를 강조해야 하며 이는 포용적 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임



- (비악) 700만개에 달하는 기업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전에 논의했던 내용들에 동의하며, 일부 요소들은 더 결합되는 측면이 강한데 이는 인적이 측면이며 인프라가 미래에 적합하도록 이뤄져야 함
- (덴마크) 여러 분석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며, 적극적 지역정책이 메가트렌드에 대해 대응이 필요함. 장소기반정책을 통해서 여러 도전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메가트렌드는 지역별로 영향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독일) 20년은 굉장히 오래된 시간인데 달성한 성과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음. 구조적 정책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구체적 답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메카트렌드는 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함
  - 구동독·서독간의 경제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상당부분 이뤄졌으며, 독일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및 OECD의 후원으로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 (체코) 과거부터 지역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여 성공을 이루고 있음
  - 낙후한 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목표 하에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지역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동의하고 있으며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음
- (프랑스) 프랑스는 매주 불신과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나라로 어떻게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음
  - 프랑스정부는 지방정부에서 활용했던 틀을 개편하고자 하고 있으며, 국토계획 정책은 드골 장군 당시에 개발되었던 정책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측면을 가지고 있음

- (이스라엘) 교통부분의 의존은 증가하고 있으며 대도시와 소도시간의 갭은 커지고 있으며,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틀은 삶의 질을 높이고 접근성과 이동성을 개선하는 것임.
  - 더 많은 기회를 누리길 원하며 토지사용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대도시에 집중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삶의 질, 접근성, 이동성이 변방지역을 성장하고 강력하게 하는데 있어서 핵심과제로 여겨짐
  
- (슬로베니아) 기존의 지역개발 정책 사례는 아직까지는 여러 지역과 사람들에게 힘을 충분히 실어주지는 못한 듯하며 지역간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었음
  - 지역적 전망과 이에 대한 효과와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비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 가능한 기회를 위한 틀이 있는지 파악해야 함
  - 부분별 정책, 미래의 업무, 경제부분 등에 있어서의 조율이 필요하며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기회와 조건을 줘야 함
  - 디지털 논의와 관련해서 국제기구와의 역할이 필요하며 OECD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함
  
- (핀란드) 2019년은 지역개발정책위원회 20주년 일뿐만 아니라 핀란드가 OECD에 가입한지 15주년으로 의미가 있으며, OECD 회원국으로 적극적 이행의 준비가 되어있음. 데이터 취합, 정책권고 등의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음
  - OECD는 장소기반 정책은 권고하고 있으나 핀란드 경우에는 각 부분간 협조가 필요함
  -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 대비, 지역간 연계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중요하므로 각 지역을 별도의 지역으로 보기 보다는 각 기능지역으로 봐야 함.
  -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협업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영국) 장소기반의 정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영국의 경우에는 지리적 브렉시트 결과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장소기반의 정책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호주) 정부, 국민, 시민단체, 민간부분들의 주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종 위원회, 포럼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음.
  - 연방국가들과의 협업 및 지혜를 얻고 있으며 호주 내에서 도시간 차이가 크며, 연방국가들의 사례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음
  -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함께 추진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중요하며, 피드백 역시도 도시와 농촌은 구분해서 받기 보다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피드백을 받아야 함. 정책을 시행하고 평가, 피드백을 받아서 끊임없이 정책에 반영해야 함.
  - 각국별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다르므로 회복력과 융통성을 가지도록 강조를 해야 함. 피드백이 가능한 플랫폼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림
- (라미아) 모든 지역개발정책은 인간중심으로 이뤄져야 함. 장소기반 정책은 여러 많은 국가들이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규모의 적응성에 투자하고 평생학습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지며 구체적 액션이 필요함
  - 모든 영토, 지역들이 결속력 있게 포괄적 접근방식과 실행이 필요하며, 장관회의에서 동일한 과제에 직면하여 새로운 접근방식 및 진행이 필요함.
  - 메가트렌드 과제들은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하며 지리적 불만을 지리적 기회로 만들어야 함.

### I. 회의명

- 전체회의 세션 2: 디지털 글로벌 경제 속의 지역정책

###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0일 9:00, 메가론 아테네 국제회의장 Banqueting hall

### III. 참석자

- 회원국
- 의장: 정경훈 실장, 대한민국
- 주요 발연자: Mr. Nelson de Souza, Portugal  
Mr. Janek Maggo, Estonia  
Mr. Dennis Alvord, United States  
Ms. Petya Avramova, Bulgaria  
Mr. Russel Mills, OECD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정경훈 실장,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조성균 담당관, 지역정책과 손덕환 과장,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이승희 사무관, 도시정책과 오원택 사무관, 지역정책과 엄수연 사무관, 지역정책과 서민지 주무관, 국제협력담당관 문성윤 자문관, 국토연구원 강민조 박사

## IV. 핵심내용

### □ 주요 발제내용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화와 기술적 변화는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 방식은 지속될 것임
  - 올바른 정책 체계가 갖추어지면 디지털 전환은보다 신속한 혁신 확산을 촉진하고 산업 전환을 지원하며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여 선행·후행 지역간 생산성 격차를 줄일 수 있음
  - 많은 하위 정부 기관들은 또한 "똑똑한 도시"와 지역 및 농촌 지역의 다른 이니셔티브를 통해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직접 압류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많은 지역이 아직까지 기술 이전을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동적이지 않음
- (의장) 새로운 기술로 위한 위협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정책이 없으면 고실업, 지역불균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
  - 도시와 비도시지역이 동시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넘어선 모든 지역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한국에서는 디지털 혁신에 대응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포르투갈) 유럽구조 펀드의 지원을 받아 포르투갈인 인코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인적 교육프로그램으로 인적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사회 내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임
  - 인공지능, 블록체인, 자율자동차 등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무 환경, 인구 변화, 에너지 구조 자원 변화 등을 가져오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문제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OECD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음
- (에스토니아) 디지털 공공서비스, 여러 전반적인 부문 특히 공공보전에 있어서 디지털화로 유명함. 디지털 기술과 경제에 있어서 기업들이 가장 도전과제로 남아 있음. 기업들이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 데이터화 하고 있으며 혁신 역량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음
  -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모든 이러한 과정을 바꿔야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안에 대하여 고려해야 함.
- (미국) 미국에서는 디지털화로 인한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수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음. 각 지방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가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의 니즈를 반영하고자 함
  - 기존의 체제를 과학기술 부상을 돕는 부분 벤처캐피탈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인큐베이터 프로그램과 엑셀레이터 프로그램 등을 산학연기관을 통해서 후원 및 지원을 하고 있음
  - 민간, 학계, 시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및 의견을 반영하여 생산성 증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불가리아) OECD 회원국의 성공적 가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적극적 개발과 고품격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
  - 적극적으로 지역개발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불가리아에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글로벌 메가트렌드는 지속적으로 경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모두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더 나은 경제개발을 위한 기회로 인지되어야 함.

- (비아크 총장) 로봇은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만 소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알고리즘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임.
- 북미, 아시아 등에서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생애주기 관점을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임. 부분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함. 자동화의 경우 생산성이 증대되었지만 수십억 인구에게 일자리를 잃는 문제점을 초래함.
- 디지털화는 이전에 나타나던 여파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함. 근로자를 바라볼 때 투자재원으로 생각하고 교육하고 숙련시켜 미래의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함. IBM의 왓슨 프로젝트 등의 디지털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와 같이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임

## □ 공개토론

- 이러한 디지털 세계경제 속의 지역정책 관련해서 3가지의 토론주제 제시
  - 토론 1: 디지털화와 기술 변화가 도시, 농촌 및 지역 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은 무엇이며 정책 입안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
  - 토론 2: 기존 지역개발정책은 모든 장소에서 디지털·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생산성과 일자리를 늘리는데 적합한지에 관한 논의
  - 토론 3: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와 시민과 이해 관계자가 지역 전략 수립 및 실행의 참여방안에 관한 논의
- (아이슬란드) ICT는 사회를 빠른 속도로 바꾸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는 향후 10년 동안 큰 문제로 나타나리라 예상됨. 아이슬란드는 ICT 인프라 측면에서는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그리스) 디지털 기술은 이미 우리의 삶, 글로벌 경제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리스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필수적임. 그 결과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스 시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고 있음.
  - 그리스는 디지털 자원에 대한 무한한 접근성을 가지기를 원함. 초스피드 인터넷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음
  
- (스위스) 디지털은 스위스에서 중시하는 사안이며 수평적인 차원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이 이뤄지길 희망함.
  - 산간지역에서도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스위스의 경우에는 지형상 산간지역이 많아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사항임.
  - IOT 부문에서도 알프스 산간 지역에 집중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체코) 디지털화는 모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는 우리에게 중요한 토픽이며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핀란드) 모든 국가가 디지털화의 선두주자가 되길 희망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마찬가지임. 국내에서도 이러한 화두가 많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는 비즈니스 부분의 혁신, 행정 관리 등에 있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국가별, 지역별로 차이가 지식창출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모든 지역이 이러한 디지털화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적절한 법안을 통해서 동등한 기회 및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함.



- (이스라엘)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하여 말하고 싶음. 스마트 모빌리티 부분에서는 선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및 업무 부분에서는 뒤처지고 있음
  -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대중교통에 투자 이외에도 디지털화를 이용한 제대로 된 연계성에 초점을 맞춰 적합한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것임.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균형된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바섬과 다른 지역간의 지역격차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고속력 인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므로 고용창출을 위한 집행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고용 창출 및 인력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젊은 청년 기업가들의 창업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투약) OECD내 지역간 격차가 큼을 알 수 있었으며, 디지털화는 이러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로 사람과 관련된 점으로 웰빙과 관련되어 거버넌스는 top-down 주 방식으로 이뤄지면 안되며 노동자들, 시민들이 모든 부분에서 참여가 이뤄져야 함.
  - 인간중심의 접근방식이 디지털화 방식에 필요함을 인지해야 함
  
- (벨기에) 여러 다양한 수준의 이해당사자들이 기관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디지털화는 일자리 창출 및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리투아니아) 후향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며 경제발전 부문을 특정 부분에만 제약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디지털화로 인한 리스크는 농어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음.

- (호주) 기술은 장소와 연관성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으며, 기술이 가져다 주는 기회는 4가지 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음.
  - 모든 지역이 인구성장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개발 및 정책을 지워할 수 있게 됨. 농촌 지역의 경우에 일손이 부족하므로 기술을 통해서 농업을 스마트한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함. 지역공동체 역시도 기술과 결합하여 확산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둘째, 기술혁신으로 이해서 서비스와 GDP 성장은 새로운 분야에도 적용 가능해짐.
  - 셋째, 여러 변방지역까지도 기술을 통해서 연계시킬 수 있었으며 낙후된 지역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됨.
  - 넷째, 기술혁신은 농업부문에서도 새로운 기회 제공중
  
- (OECD) 기업들간에 디지털 격차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간 격차는 매우 중요함.
  - 디지털화가 기업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신생기업, 소기업의 경우에는 디지털로 인한 혜택을 많이 얻지 못하고 있으며 소기업 중 20%가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45%이상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음. 클라우드 자원 활용에 있어서 대기업과 소기업간 격차는 훨씬 큼.
  - 디지털 격차를 논할 때 장소뿐만 아니라 기업간 격차도 무시해서는 안됨. 정확히 어느 정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관련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임.
  
- (의장) 기술혁신이나 디지털화가 기회적 요인이며 위협적 요인임을 모두 공감함. 디지털화가 근로자의 소외문제 및 지역간 불균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협요인임을 인지함. 디지털화로 인한 근로자 측면에서의 소외 문제, 인적자원의 육성 필요성, 소외지역 지원, 지역적 차원에서의 지원 등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점 도출함.

## I. 회의명

- 전체회의 세션 3: 포용을 통한 인구·사회적 변화 대응

##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0일 11:00, 메가론 아테네 국제회의장 Banqueting hall

## III. 참석자

- 회원국
- 의장: Mr. Felipe Salaberry, Chile
- 주요 발언자: Ms. Jennie Nilsson, Sweden  
Mr. James Meddings, Canada  
Mr. Fumihiko Yuki, Japan  
Mr. Jose Lgnacio, Spain  
Mr. Rudy Prawiradinata, Indonesia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정경훈 실장,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조성균 담당관, 지역정책과 손덕환 과장,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이승희 사무관, 도시정책과 오원택 사무관, 지역정책과 엄수연 사무관, 지역정책과 서민지 주무관, 국제협력담당관 문성윤 자문관, 국토연구원 강민조 박사

## IV. 핵심내용

### □ 주요 발제내용

- 인구 고령화, 도시화, 인구 감소 및 이주와 같은 광범위한 인구 통계학적 사회적 변화는 지역 사회 전반에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잠재적으로 기존 분열을 증폭 시키거나 새로운 기회를 제시
  -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과 장소의 미개발 된 잠재력을 보다 잘 활용하면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고 메가트렌드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열 수 있음
  -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공공 서비스의 질 (교육, 건강 등) 및 경제적 인 주택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장소 기반 없이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 이러한 이슈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영향은 지역, 도시,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인근 지역에서도 다양함
  
- (캐나다) 도시화, 고령화, 이주에 관한 문제는 계속해서 지역, 도시, 비도시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음. 특히, 이민 및 이주는 30백만 인구에 영향을 주고 있음.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다양한 나라에서 이주해 왔으며, 특히 토론토 인구의 50%이상이 캐나다 밖에서 태어남.
  - 세계화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고 교육의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다양한 민족의 많은 학생들 캐나다를 이민해 와서 교육을 받고 기술을 습득하고 있음
  - 캐나다 정부는 15백만 달러를 들여서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에도 투자하고 있음
  
- (스페인) 스페인은 인구 감소 및 노령화의 문제를 겪고 있음.

- 특히,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한 포용, 모든 지역을 아우르기 위하여 인구감소 및 노령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일본) 일본 또한, 도시화,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사회·인구학적 문제를 겪고 있음.
  - 도시 중심부와 외곽부의 인구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솔루션 부문으로는 주택문제, 공공서비스 문제점 등을 해결((세금감면 등의 프로그램)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인도네시아) 인구 및 사회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인도네시아는 공공 교통서비스 등의 공공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 외에도, 사회적 포용과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주택, 수자원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로컬 지역)의 안전한 환경 제공, 문화적 유산 활용, 지역의 문화자원 활용, 도시 문화자원 활용, 로컬 교육적 시스템 구축, 도시 문화 개발, 실용적인 주택정책 등을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음

## □ 공개토론

- 이러한 포용을 통한 인구·사회적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3가지의 토론주제 제시
  - 토론 1: 다양한 유형의 지역 사회에 대해 인구 및 사회적 변화의 영향과 지역개발정책의 조정방향에 관한 논의
  - 토론 2: 전통적인 지역정책 (예: 건강, 교육, 주거, 이주) 이외의 정책 영역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공동체 구축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방식의 지역개발전략에 관한 논의
  - 토론 3: 인구 통계학적 메가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책

이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 사이의 잠재적인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

- (터키) 시리아, 이라크 등의 이민자로 인해서 이민에 대한 이슈가 터키에서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이주 문제는 터키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네델란드) 네델란드 또한 사회적·인구적 변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정책으로 국가 수준과 로컬 수준 모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새로운 일자리 기회의 창출, 파트너십, 예산 지원 등을 통한 지역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그리스) 그리스는 노동시장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인구적 변화에 따른 노동 관계에 중점을 둠
  - 그리스 젊은이들의 사회적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 프랑스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의 인구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인구학적 진화는 사회적 진화와 연계되며 사회적 접근은 중요한 연계, 네트워크 지원이 이뤄져야 함.
  - 공공정책을 통해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 평등한 접근, 평등한 공공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의 이민이 주요 사회적·인구학적 변화의 결과 중의 하나임.
  - 콜롬비아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도시들은 압박을 받고 있음 비도시 지역에서도 특히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규제가 필요함.

- (EU) 메카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함. 지역의 다양성을 아우르는 로컬 레벨의 도전이 요구되고 있음. 지방분권에 대하여 정책을 최적화시켜야 메가트렌드에 대응이 가능함. 서비스, 건강, 고용은 주요 도전과제임
- (독일) 사회적 지역, 인프라, 독일은 기술혁신에 중요한 역할은 기술 혁신 증진, 잠재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과학적, 기술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적 접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 (영국) 영국 또한 이주로 인해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남.
  - 영국의 젊은이들에게는 알코올, 멘탈 헬스 체인지 등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며 더 폭력적 성향으로 변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함
  - 특히, 브렉시트로 인하여 정치가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사회적 결정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관심을 두고 있음
- (슬로베니아) 영국의 상황과 연계시켜 정책적으로 국민의 기대치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치적 레벨에서 포용적이고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는 축소도시(shrinking city)는 사회적·인구적 변화로 나타난 주요 이슈이며, 이 외에도 실글패 밀리의 증가로 인해서 사회·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음
- (핀란드) 핀란드는 세계화 과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이주(이민) 문제는 다른 분야에서

- 다른 사회를 형성하고 있음.
-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로이며 인구유출의 문제로 인해서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이는 축소도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함
  - 장소기반의 정책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중요한 해결점이라 여겨지며, 축소도시에 장소기반 정책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대를 끌어들이도록 해야 함
- (카자흐스탄) 정부는 2년 전부터 사회적 불평등과 여성과 아이들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이를 주요 해결과제로 보고 있음
- 세계화, 디지털 등의 메가트렌드로 인한 도시화는 지난 10년간 도시 인구의 25% 증가하였음.
  - 도시화 과정에서 신기술, 농업지역, 작은 도시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도시로의 인구유출은 이러한 메카트렌드의 요인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정부는 뉴 이니셔티브로 18개의 기능지역을 지정하고 모든 분야의 섹터에 프로그램을 설정·운영하고 있음
- (OECD) 본 세션에서는 지방의 지역개발과 사회적 포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 특히, 고용률, 이주, 노동시장 등을 주요 이슈로 보고 있음. 노동시장 정책에 따라서 공공의 액션플랜들은 특히 농촌지역을 장소에 기반한 정책, 이주 정책 등을 데이터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및 정책 효과 등에 대해 토론과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I. 회의명

- 분과회의 세션 B: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검토

##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0일 14:00, 메가론 아테네 국제회의장 MC2

## III. 핵심내용

### □ 주요 발제내용

- (의장)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 및파리 협약과 같은 지속 가능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글로벌 협약의 성공 여부는 주로 지역 차원에서 결정될 것임
  - 인프라 구축과 환경 보호에 이르기까지 도시, 지역 및 농촌 지역이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 정부는 협력의 우선순위 설정 및 필요자원과 역할 배분 필요
  - 지자체의 미래 설계시 해당 주체의 적극적 역할 필요
  - MDGs\*에도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개발(SDG)와 MDG 정책 사이의 목표간에도 적절한 관계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함

\*MDGs: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범세계인 약속. 2000년 9월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서밋에서 채택된 빈곤 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이다. 당시에 참가했던 191개의 국제연합 참여국은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 또한, 수자원, 기후변화, 주택, 금융 문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 정책을 148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40% 이상의 국가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함
- (EU) 국가 하위 단위(sub-national level)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고려해 봐야 함
- (아르헨티나) 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양한 국적의 거주민들이 살고 있음. 3개의 국가 하위 단위의 레벨(national, sub-national, local level)로 구성되어 있으며, 40%의 인구가 메트로폴리탄에 거주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영토개발과 지역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가하위단위의 정부의 주도 하에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는 국제적 금융기관 등이 입지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무엇보다도 주택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하여 CO2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즉각적으로 정부가 대응해야 하는 이슈로 여겨짐
    - 이러한 기후변화나 주택부족의 문제 등은 국가단위(national-level), 국가하부단위(sub-national level), 지방단위(local level) 모두에서 다양한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상향식(Bottom-up) 이니셔티브(강한 동기화 유발 가능) 구성을 통해서 로컬 단위의 지방정부 255개가 같이 협업을 함으로써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지속적으로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의 도시 프레임워크 기반 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 서비스를 커뮤니티에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사회적 아젠다에 대응하고 있음

- (리투아니아) 작년엔 OECD 회원국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리투아니아는 국가적 단위의 레벨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정치적으로 좀 더 분산화된 지방분권 정책을 지역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 국가의 중앙정부는 지역 의회의 상향식(Bottom-up) 시스템 하에서 의사결정을 하며 기능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무엇보다도 정부 단위간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 교통 서비스 정책, 더 나은 수준의 조직 구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더 나은 정부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공공 서비스 제공, 행정구역 단위의 서비스 제공, 지리학적 특성화, 병원 및 학교 등의 시설 설립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공서비스간의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국가하부단위에서 지방분권화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s)를 통해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터키)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하여 논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터키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국가적 수준의(national-level)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실행계획(액션 플랜)과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17개의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UN 정책에 대응하고 있음. 경제 성장과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함

- 비도시-도시지역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려고 함.
- 국가적 계획에 있어서 SDG의 목적은 산업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지표는 세계적 지표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있음.
- ODA등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지원 등은 국제적 레벨에서 다뤄야 할 이슈이며, 혁신기반으로 국제적 R&D 운용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국제적 레벨에서의 편당은 터키뿐만 아니라 터키 이외의 시리아 지역, 커뮤니티 등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서부터 로컬 레벨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shelter 등에 기여하고 있음.

## □ 공개토론

-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검토와 관련해서 3가지의 토론주제 제시
  - 토론 1: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 변화에 대한 지역 정책 결정, 계획 도구 및 투자 전략에 관한 논의
  - 토론 2: 지방 정부 차원의 성과 평가 수단 및 데이터 및 증거 측면에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
  - 토론 3: 순환 경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 정부의 역할 및 협력에 관한 논의
- (UN) MDG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모두에 중요한 이슈임. SDG를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 참여를 유도시켜야 함. 더 평등한 시스템 더 나은 서비스, 재투자, 경제적 성장, 사회적 포용 개발 정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장소에, 모든 레벨에서’ 고려되어야 함

- (이스라엘) 교통, 산업, 에너지, 주택, 다양한 분야로 확대시켜서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 조성을 고려해야 함.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광범위한 시각을 가지고 개개 빌딩들의 에너지 소비, 에너지 생산, 탄소 방출 등을 고려하여 살기 좋은 도시, 삶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함
  - 도시는 탄소이용률(carbon efficiency)를 고려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슈를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스케일에서 포용적 정책을 수립해야 함. 다양한 지역단위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지표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속가능한 지표들 사이의 관계 또한 다양한 스케일에서 다뤄져야 함
  
- (EU) 기후변화 및 기후정책은 커뮤니티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침.
  
- (폴란드) 지속가능한 개발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부처와 협력해야 할 과제임. 특히, 혁신은 폴란드에게 있어서 주요 도전과제이며 오염문제, 주택공급 문제 등이 주요 문제로 다뤄지고 있음
  
- (에스파니아) 지속가능한 개발은 국가적 전략에 해당하며 국가위원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나가고 있음
  -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자 하며 어떻게 지속가능한 지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음. 국가기관에서 20~30개의 아젠다를 가지고 정보를 모으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그리스) 그리스에게 있어서 산업화는 매우 큰 이슈로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및 미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 포용,

중기적, 장기적 목표 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성공적인 미션은 친환경적인 그린 개발 성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친환경적 공간이 조성된 섹터일수록 관광도 더욱더 활성화 되며, 이 외에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청정에너지 활용 등에 의미가 있음.
- 다양한 단위의 정부(national, sub-national, local level)들은 원탁회의(round table meeting) 를 통해서 이러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뿐만 아니라 로컬 커뮤니티들은 좀 더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OECD) 다양한 정부단위(national, sub-national, local level) 긴밀한 협력(hand-in-hand)은 지금까지 논의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중요함. 특히, 국가적 정부 단위에서든 지방 정부 단위에서든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 이슈와 이와 관련된 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있어서도 지속적 토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여겨짐